

11월 04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0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11.03 경제종합대책 발표	외평기금 발행한도 확대, 외화예금보장,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유도, RP매입-국채 직매입 등으로 원화 유동성 공급.
`오락가락` 뉴욕 보험 혼조..`기대 vs 우려` [다우: 9,319.83pt (-0.06%)	뉴욕 주식시장이 보험권 등락을 거듭한 끝에 혼조세로 마감. 이날 뉴욕 주식시장은 신용경색 완화 기대감과 경기후퇴(recession) 우려감이 충돌하는 장세를 펼쳤음.
한국 외환보유액 274억불 사상 최대폭 감소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말 외환보유액은 전월말 대비 274억 2,000만달러 줄어든 2,122억 5,000만달러로 집계. 지난 2005년 12월 2,104억달러 이후 최저수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사상 최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감.
美 10월 제조업지수 26년래 최저. 경기후퇴 신호`	미국 전역의 제조업 경기를 가늠하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가 26년래 최저치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날 ISM은 10월 제조업지수가 전월의 43.5%에서 38.9%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라이보 `리먼 사태` 이후 최저치	달러 유동성을 가늠하는 3개월짜리 라이보 (런던은행간금리)는 전 거래일대비 17bp 떨어진 2.8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최저치 수준.
유가 63달러대로 급락..`수요 부진 전망`	국제 유가가 수요 부진 전망에 영향을 받아 배럴당 63달러대로 급락했음. 이는 경기후퇴(recession) 우려감을 증폭시키면서 원유 수요 감소 전망으로 이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임.
SC제일은행 은행채 1조 바이백	c제일은행이 시중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바이백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 종목 당 바이백 액은 1,000억~1,700억원에 달해
국고채 내년 15조원 안밖 증가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을 10조원 확대하기 위해 국채를 당초 예정보다 10조 3,000억원 증가한 17조 6,000천억에 이르고 외환시장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평기금도 채권방행 한도로 당초 예정보다 5조 6,000억원 증가한 20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밝힘에 따라 내년 발행하기로 했던 58조 3,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한도 이외에 15조 9,000억원 증가한 73조원 안밖이 될 것으로 보임

제목	주요 내용
유로존 경제, 3분기 침체 진입	EU 집행위원회(EC)는 3일 2008년 가을 경제전망을 통해 유로존 경제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발표. EC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져 내년 유로존 경제가 1993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 EC는 이에 따라 유로존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5%로 0.1% 대폭 하향조정.
"英경제, 내년 마이너스 성장"-EC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영국 경제가 올해 0.9%에 이어 내년 -1% 성장할 것으로 전망. 예상대로라면 1991년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세. 영국 경제가 이후 다소 회복돼 2010년 0.4% 성장할 것으로 예상.
中 인민은행, 상업은행 대출규모 통제 중단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국내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 규모 통제를 중단했다고 상하이증권보가 3일 보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